

-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울타리
 1) 소사신앙촌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3) 소사신앙촌 생활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에 쓰러져가는 신앙촌사람들
 5) 노구산 집회: 기우계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8) 영모님의 재판
 9) 불법적으로 영모님을 처단시도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리당
 11) 꿈같은 영모님의 석방
 12) 교단체제를 정비하시는 영모님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6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노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문을 열어라' 라고 호령을 하니 청년들이 그 기세에 놀려 얼떨결에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김 장로는 영모님택에 쌀 한 가마를 내려놓고 사모님에게 "안심하십시오. 계속 쌀을 가져다 드릴 터이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나왔다. 그러나 그후에는 두 번 다시 영모님택에 쌀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총회간부들에게 아단을 맞은 청년들이 막무가내로 영모님택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11) 꿈같은 영모님의 석방

1960년 3월 26일 영모님의 꿈 같은 석방이 이루어졌다. 총회에서는 청년들을 시켜서 출옥하신 영모님에게 누구도 접근 못하게 막았다. 영모님 사모님도 또 그 영모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일체 영모님에게 접근을 못하게 막은 것이다. 영모님이 나오실 때는 제일 먼저 김 풍자와 그 남편인 김문환 장로 그리고 총회장인 강대헌 장로 등만 접근하여 복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하시게 하고 이발을 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리고 양복으로 갈아 입으시도록 하고 소사신앙촌으로 향하셨는데 이 몇 시간 동안 위의 사람들 외엔 아무도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사신앙촌에 오신 영모님은 즉시로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단으로 들어가서 단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영모님은 제일 높은 삼층단에 안 올라가시고 이중단인 중간단에 서시는 것이다. 찬송인도를 하시고 "그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였는지"라는 말 몇 말씀만 하시고 예배를 마치셨다. 그리고 단 밑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 가셨는데 그곳에는 총회간부들과 서울 관장들이 모여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오신 영모님은 방석에 앉으셔서 한 손을 이마에 대시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을 그와 같이 하고 계셨다. 그때 그 사무실 내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영모님의 표정은 아주 무서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다들 숨소리로 죽어가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모님께서 돌연 침묵을 깨시고 안찰을 하시고 하셨다. 먼저 총회간부들이 받았다. 총회 간부들을 해주시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해주셨다.



박태선 영모님께서 설교하는 모습

다음부터는 서울 관장들 차례다. 서울 관장들을 안찰하시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하시면서 이것 저것 흠을 잡으시면서 야단만 치시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총회간부들의 얼굴은 보란 듯이 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하의 일을 것이다. 이후 영모님은 약 5개월 동안 노구산에 있는 오만제단에서 내려오시지를 못하셨다. 오만제단 속소에서 유(留)하게 하고 문 밖에서는 청년들이 지켰다. 총회 간부들 이외는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영모님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영모님은 노구산 오만제단 속소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은 두 번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다. 총회의 뜻한 바대로 영모님은 이중단에서 설교만 하시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총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은 묵묵히 총회가 하는 대로 따르시는 것이다.

그러나 4개월쯤 되면서 영모님은 총회 세력을 제거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때부터 총회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총회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영모님의 계획대로 일처리를 일사천리로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오만제단에서 영모님 자택으로 내려오시고 사모님과 자녀들과도 상봉을 하시기 된다. 이렇게 하신 후부터 비로소 영모님은 오만제단 삼층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민족을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하시면서 역사하는 모세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모세를 대항하는 세력의 수장이 고리당(민16장 참조). 이 고리는 그를 동조

하는 족장 250명과 함세하여 모세를 대항했다(민3:2-3 참조). 모세를 대항하던 고리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이 꺼져서 땅 속에 묻히는 형벌을 받았다(민16:31-32참조). 또한 고리와 같이 모세를 대항한 족장 250명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불로 소멸되고 말았다(민16:35절).

영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전하며 대항한 총회는 모세 때의 고리당과 너무나도 흡사하였다.

[더욱이 필자가 놀라워 하는 것은 영모님 때에서 약 30여 년 후 완성의 주인공이 역사하시게 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1994년도에 완성자 주인공되시는 분이 옥고를 치를 적에 그 주인공 아래서 중요 간부로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대항하는 일이 있었다. 똑같은 원리로 주인공을 단에만 세우고 재정 인사 등 일체 실무는 자기들의 조직화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모님을 잡으려 하니 방법과 수법이 똑같은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때 필자는 영모님 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수법으로 하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곳이 참구세주가 출현한 참진리의 길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12) 교단 체제를 정비하시는 영모님

1960년 3월 26일은 영모님께서 꿈 같은 석방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자유당정권은 이승만 박사의 하야로 무너졌다. 이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데까지 몰고가서 성공을 이루었다.

자유당정권이 무너지니까 제일 큰 문제가 생긴 집안은 이기봉 가족이었다.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전권을 쥐고 흔들었던 이 집안이 뜻할 리가 없었다. 더욱이 하늘의 뜻을 이루시려 출현하신 영모님을 모함하여 죽이려 한 장본인들이었던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이기봉 가족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된 큰 아들 이강석에 의해서 전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이강석도 자살을 한 것이다. 역천자(逆天者)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의 표시였다.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장면정권이 들어섰다. 이 민주당 정권은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2원집정부제 형식이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책임제였다. 이렇게 하여 들어선 장면 총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바티칸의 뜻을 100%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천주교 총리였다.

한편 1960년 3월 26일 출옥하신 영모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회를 쳐버리고 정상을 되찾으면서 전도관 전체를 법적으로 하지가 없는 조직체로 만들기 시작을 하셨다. 두 번 다시 총회와 같은 어리석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제단명칭을 교회로 고치든가 또는 감람나무를 무시하는 기성교단으로 복귀시키려는 마귀의 술수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된다.

1960년 7월 6일 전도관의 공식명칭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하시고 또 종교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예수교 전도관 유지재단'으로 문공부에 정식 인가를 받고 등록을 마쳤다. 그래서 총회마귀들이 시도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공식명칭을 확정지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1960년 8월 15일에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헌장(憲章)'을 제정했다.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아무 하지가 없는 완벽한 종교단체의 모양을 갖추어 놓게끔 하신 것이다.*

도덕경 해설

天之道 利而不害

천지도 이이불해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지 해되지 않고

도덕경 81장 해설(마지막회)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최고 목표는 행복이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불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도를 닦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한 때문이다. 세상에서 무슨 도를 닦는다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지식을 쌓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또 멋있게 보이려 하고, 고상하게 보이려 하고 단단히 하는 이러저러한 이유는 모두가 근본을 모르는 자요 핵심을 벗어나 있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혹여 지금 까지 다른 이의 도덕경 해설을 읽고 그런 느낌과 생각을 받았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니, 이제부터 생각을 달리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사람은 솔직해야

참으로 인간답고 신뢰가 가는 법이다. 여하간에 글썽이는 도덕경을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독자재현께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길과 방향을 이 해설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고 감히 전언(傳言)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쭐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행복의 길과 그 소유 방법을 꼭 성취하는데 도와 주고 싶은 따뜻한 인간애(人間愛)에서 비롯된 마음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도덕경 속의 전반에 담겨져 있는 불로장생의 방법과 무위자연, 그리고 염담허무의 도를 실생활 속의 생생한 현실적 언어로 풀어 전하고 있는 것

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도를 닦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신을 갈고 닦아 행복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를 닦는 궁극적 목표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온전하지 않고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국 고통과 죽을 그리고 인간의 불행이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이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기에 사람으로서 부단히 도를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를 행함에 있어서 몸을 닦는 다

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약하다 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깨침과 배움과 육체적 단련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몸이 단련되어 강하여지면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서도 쉽게 고통받지 않고 잘 견디어 낼 것이고, 더 나아가 금강체(金剛體)가 되어 불로장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깨달음과 지혜가 쌓이게 되면 어리석음과 몰라서 겪게 되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 관계에서 오는 무능력으로 오는 고

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강인한 육체와 온전한 지혜를 갖추게 되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뛰어넘는 초인(超人)의 경지에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체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멋지고 위대한 생(生)을 다 같이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수천 년 전 노자의 도가 면면이 살아서 후생(後生)에게 귀하게 일히지면서 경승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만물을 살려서 도원경의 세계를 펼치는 길(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제현님께 감사드립니다.

信言不美(신언불미):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美言不信(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善者不辯(선자불변): 참다운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고

辯者不善(변자불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知者不博(지자불박): 아는 사람은 넓게 알지 않고

博者不知(박자불지): 넓게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다

聖人不積(성인부적): 성인은 쌓아두는 일이 없다

既以爲人 己愈有(기이위인 기유유): 본래부터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既以與人 己愈多(기이여인 기유다): 본래부터 사람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많은 것이

天之道利而不害(천지도이이불해):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지 해되지 않고

聖人之道 爲而不爭((성인지도 위이부쟁): 성인의 도는 일을 행하여 다투지 않는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